



Global Goings-on

일본

아동수 지속적으로 감소 (Number of children continues to fall)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의 수는 2009년 4월 1일 기준 1천 7백 1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8년 연속 최저치이다. 휴일인 어린이날에 하루 앞서 내무통신성이 내놓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구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년째 계속 하락해서 13.4%로 떨어졌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4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2.5%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각각 13.9 퍼센트와 14.1 퍼센트로 일본보다 높다.

동 보고서는 남자 어린이의 수를 78만으로, 여자 어린이의 수를 8백 35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어린이의 비율은 아키타 현이 11.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따르는 도쿄 도는 11.8%였다. 오키나와 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7.9%를 나타냈다.

어린이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른 곳은 도쿄도 뿐이었다.

The Japan Times 2009년 5월 5일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nn20090505a6.html>>

미국

남녀 보험료 차등 부과 폐지 (Health Insurers Agree to End Higher Premiums for Women)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동일한 보상범위에 대해 남녀 차등적인 보험료를 부과해오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미국 여성들은 보상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이는 미국 국회가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보건의료산업의 개혁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험회사들이 최근에 내놓은 타협안이다.

작년 11월, 보험회사들은 병이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오던 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험회사 조합인 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의 회장인 Ms. Ignagni는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정책은 받아들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의료보험 제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John Kerry 민주당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지난 화요일 보험회사들이 성별을 보험료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동일한 보상범위에 대해 남성들 보다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19~55세 사이의 여성들의 경우, 병원치료,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의약품 처방 등 여러 분야에서 같은 연령층의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출산시기에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남녀 차등 보험료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수백만에 달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금혜택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에서 언급한 지원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보험시장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년 5월 6일
<원문링크: http://www.nytimes.com/2009/05/06/us/politics/06insure.html?_r=2&ref=health>

세계보건기구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 전세계적으로 2,300명 넘어 (Swine Flu Cases Worldwide Exceed 2,300)

지난 목요일(5월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24개국에서 2,371명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46명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망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멕시코에서 사망했다.

과학자들은 올해 3월 멕시코에 등장했던 새로운 전염병 변종과 일부 일치한 사례들로, 현재 돼지 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감염된 11명의 미국인 사례들을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는 2005년 12월에 있었다.

뉴잉글랜드의학저널(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질병통제국(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바이러스학자들은 위의 발병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이 미국 중서부에 사는 젊은 사람들로 돼지를 만졌거나 그 근처에 갔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사람, 돼지, 조류 독감 유전자가 결합된 삼중 재배열 바이러스(triple reassortant virus)를 보유하고 있었다.

멕시코로부터 발병이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H1N1 독감 또한 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라시아 돼지의 유전자마저 포함하고 있다.

미국질병통제국 바이러스 조사팀의 Michael W. Shaw는 유라시아 유전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사람이나 돼지 모두에서 발견된 적이 없

으며 감시에 구멍이 있다”라고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또 유라시아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저장 샘플들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이 냉동고를 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1명의 환자 중 4명은 병원에 입원되어야 했지만 11명 모두 결국 회복되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지난 목요일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재개했다. 바이러스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멕시코 당국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했다. 식당들도 다시 문을 열었으나 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부총장 Keiji Fukuda 박사는 과거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유행병의 경우 1년 내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에서의 돼지 독감 감염자 수는 150명으로 증가했다. Fukuda 박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아직 세계보건기구의 유행병 경고 레벨을 올릴만한 지속적인 지역적 감염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

미국에서는 국가 보건 당국이 가능한 모든 바이러스 사례를 검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일

이 산적해 있고 100가지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독감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뉴욕에서는 병원신세를 져야만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건당국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요일 저녁 미국 질병통제국의 발병자수는 41주 896명에 달했다.

미국 질병관리국의 국장 대리인 Richard E. Besser씨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전염병이 증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염된 사람들 중 10%만이 멕시코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감염사실이 확인된 사람들 중 약 5%가 병원에 입원된 적이 있다. 이것은 계절성 독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감염자들의 나이 중앙값은 15세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다. Besser 박사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이 신종 바이러스로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편중

될 수 있다.

돼지 독감에 감염된 환자 한 명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날을 포함해 7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가을에 전염병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면역을 얻으려고 잘못된 이론만 믿고 “돼지 독감 파티”를 열거나 기타 고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는 행위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Besser 박사는 말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감염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년 5월 8일
 <원문링크: <http://www.nytimes.com/2009/05/08/health/08flu.htm?scp=3&sq=swine%20flu%20cases%20worldwide%20exceed%202,300&st=cse>>